

거둔사(居頓寺)터. 전국의 폐사지 가운데서도 대표적 폐사지로 손꼽히는 바로 그 절터다. 분명 폐사지이기에는 한데 황량한 느낌보다는 짙 채워진 정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여느 폐사지를 답사할 때와는 사뭇 그 느낌이 다르다. 공허가 주는 충만함, 바로 그 재미에 오늘도 폐사지를 찾는 부류가 생겨나고, 거둔사 터는 그 버릇을 들이는 첫 관문의 노릇을 하는 것이다.

민심의 무속인들이 돛지리를 들고 신령한 기도처를 찾아 헤매듯 폐사지 답사 여행도 무엇인가 홀려 산하를 뛰는 반쯤은 제 정신이 아닌 것이다. 언젠가 세월의 저쪽에서 향락을 밝히고 소지(燒紙)를 올렸던 흔적들, 그 불탄 영험들이 사무상주(是無上呪) 사무등등주(是無等等呪)가 되어 21세기에 도 손길을 뻗치는 것이다.

남한강 가에 널려있는 무수한 절터들을 일일이 다 살펴보는 어렵다. 원주 문막 일대만 해도 지난 371회에 다녀온 법천사를 비롯 거둔사, 흥법사 등 이름하여 3대 폐사지가 있고, 목계나무 청통사 터, 안성 봉업사 터, 총주 중원의 법평리7층석탑, 여주의 고담사 터와 이포나루 계신리 마애불, 수를 댄 정보사 터, 또 오갑사 터를 비롯해 하남 현왕사터까지 세월의 물살에 휩쓸려 강나루 돌발 같은 무수한 폐사지들이 물길을 따라 널려있다. 모두가 하나같이 나팔여초에 건립되어 천성기를 구가하다가 어느 시기



◇ 원공국사승요탑이라 불리는 지중스님 부도(보물 제190호).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관에 세워져 있다.

폐사지를 찾아서
장지연의
잊혀진가람 탐험

원주 거둔사터



에 폐사되었는지 알 수 없는, 비밀과 아름다움을 간직한 절터들이다.

거둔사터 역시 자작고개 하나를 넘어 법천사지 지척에 있고, 조금만 강 기슭을 거스르면 갈참나무 숲속에 오롯히 숨겨져 있는 청통사 터와 탐평리 석탑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담아내기에는 허락된 것들이 여의치 않아 그냥 거둔사 터에 이른다.

거둔사 터에 닿으면 언제나 변함없이 반겨주는 수령 천년의 느티나무가 있다. 석축과 함께 늙은 몸을 뒤돌며 절터를 떠받친 거둔사 터의 능들한 수호신이다. 그리고 보면 여주 고담사터에도, 고개 넘어 법천사터에도 우람한 느티나무들이 버티고 서 있다. 세월을 거스르는 데는 느티나무 만한 것이 없다. 건당(健堂)이고 방부(房父)이고 간에 그쳐 고목의 그늘 아래서 쉬었다 가라는 옛 주인들의 배려일까. 거둔사터 느티나무는 그 중 연장자로, 수령 1천년이 넘는 것이며 그 생김만 보아도 길 쪽에서는 허리까지 석축에 잠긴 반 지하 상태이고, 절터 쪽에서 보면 지상으로 죽지를 뿜어 1만여 평 사지를 넉넉히 품을 태세다.

법천사와 거둔사, 두 절 사이는 현존 당시에도 그랬을 것이고, 폐사된 지금에도 이웃 사촌 같은 정겨움이 느껴진다. 동시대에 이러한 거찰들이 작은 고개 하나 사이로 공존하고 있었다면 이 일대야말로 한 때 한국불교의 중심지였으며, 오늘날의 한국불교가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 있는 것 같다. 법천사가 진리(眞)의 새암이라면 거둔사는 그 샘물을 가둔 웅덩이쯤 된다. 법천사가 소실된 이후, 철저히 망가진데 비해 거둔사가 비교적 사역이 잘 보존된 것은 아드막한 아산이 절의 삼면을 병풍으로 둘러싸고 절터 옆에 천혜의 저수지를 법의 웅덩이인양 끼고 있어 폐허의 몰살조차 수위 조절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법천사 터에 불두화 같은 지공국사(智光國師, 984-1067)의 향기가 남아 있다면, 거둔사 터에는 필레꽃 같은 원공국사(圓空國師, 930-1018)의 온기가 스며들었다.

원공국사는 누구인가. 국사의 법호는 지공(智空)으로 여덟살 나이로 개경 사나사(那那寺)에서 출가, 955년 중국 오월에 유학하여 법안종법(法眼宗)의 법맥을 전수받았다. 그 후 중국 천태종의 근본도량인 천태산 국청사에 들어 '대정혜론(大定慧論)'을 배우고 천태종지를 가르치는 교수사가 되어 970년 고려로 돌아와 역대왕들의 신임을 받던 고승이었다. 원공국사는 귀국 후 왕권 강화를 위해 개혁정치를 표방하던 공종의 비호를 받으며 법안종 세력을 고려 불교계에 크게 떨쳤다. 그러나 공종이 사망하고 그의 급진적 개혁정치가 중도에 그치면서 법안종 세력도 급속도로 위축되고 원공국사도 89세인 1018년 병든 몸을 이끌고 거둔사에 이르러 임종을 맞는다.

거둔사는 고려 초기의 불교계를 주도해 왔던 법안종의 중심사찰 역할을 하며, 한껏 필레꽃 향기를 머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고려 중기에 이르러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하면서 영암사(靈巖寺) 지공사(智空寺) 등 5대 고종 사찰과 함께 천태종의 기반 사원으로 흡수되었다.

원공국사 지공은 입멸 후에 현종으로부터 국사로 추증되었으며, 탐평리와 함께 비의

고려초 법안종 중심사찰 대표적 폐사지로 꼽혀

적 개혁정치가 중도에 그치면서 법안종 세력도 급속도로 위축되고 원공국사도 89세인 1018년 병든 몸을 이끌고 거둔사에 이르러 임종을 맞는다.

거둔사는 고려 초기의 불교계를 주도해 왔던 법안종의 중심사찰 역할을 하며, 한껏 필레꽃 향기를 머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고려 중기에 이르러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하면서 영암사(靈巖寺) 지공사(智空寺) 등 5대 고종 사찰과 함께 천태종의 기반 사원으로 흡수되었다.

원공국사 지공은 입멸 후에 현종으로부터 국사로 추증되었으며, 탐평리와 함께 비의

서쪽 기슭에 부도가 건립되었다. 그러나 지금 거둔사 터에는 현종16년(1025) 조성된 부도비(보물제78호)만이 절의 한 권을 지키고 있다. 원공국사승요탑(圓空國師勝妙塔)이라 불리는 부도(보물제190호)는 짙을 이루지 못하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와다(和田)가 서울의 자기 집으로 옮겨간 것을 회수, 1948년에 경복궁으로 옮겨다가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뜰에 외롭게 서 있다.

거둔사지는 1968년 2만4천7백 86㎡의 터가 문화재보호구역(사적 제168호)으로 지정되어 1982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했다. 91년까지 10여년에 걸쳐 한림대박물관이 4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벌인 후, 1차로 7천5백평의 사역을 단아하게 정비하였다. 거둔사 터에서는, 사지 보존도 이 정도 되면하는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법하다. 마침 이번 방문 길에도 안개 비가 부슬거리는 가운데 잡초제거 작업을 하는 여남은 아낙들의 평화로운 정경이 눈에 들었다. 원주시가 중원문화관광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17억5천만원에 투입, 정비작업을 완료한 후, 그랜드관리를 해 나가는 모양이다. 문화재의 보존은 예산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안목이 중요한 것이다.

거둔사 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물은 사지 한가운데 제1면터 눈에 띄는 삼층석탑(보물 제750호)이다.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이 없는

이 4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벌인 후, 1차로 7천5백평의 사역을 단아하게 정비하였다. 거둔사 터에서는, 사지 보존도 이 정도 되면하는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법하다. 마침 이번 방문 길에도 안개 비가 부슬거리는 가운데 잡초제거 작업을 하는 여남은 아낙들의 평화로운 정경이 눈에 들었다. 원주시가 중원문화관광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17억5천만원에 투입, 정비작업을 완료한 후, 그랜드관리를 해 나가는 모양이다. 문화재의 보존은 예산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안목이 중요한 것이다.

거둔사 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물은 사지 한가운데 제1면터 눈에 띄는 삼층석탑(보물 제750호)이다.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이 없는



◇ 지난 68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원주 거둔사터. 오른쪽이 보물 750호인 삼층석탑. 왼쪽이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비(보물 제78호)이다.

삼층석탑·불대좌가 조화...애잔한 모습 잇단 석물발견, 보호구역 추가지정 시급



◇ 폐교된 정선초등학교 옆에 누워있는 당간지주 한쪽(9.6m).



◇ 삼층석탑 전면에 놓인 배례석에 새겨진 연꽃문양.



◇ 사지 왼쪽편에 모셔져 있는 석조물들. 거둔사의 역사를 증언해준다.



◇ 원공국사 지중스님의 비(보물 제78호).

〈시인·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다음은 원주 지정면 흥법사터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석탑의 형태나 폐사지의 허전함을 잘 보여주 주고 있으며, 동쪽 언덕 위에 올라 사역을 조망해 보면 더욱더 친근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다가와 눈길을 떼지 못하게 한다. 탑 전면에는 연꽃이 새겨진 아담한 배례석이 놓여 있는데 연꽃 조각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거둔사지의 또 하나 명물은 금당지 중양에 봉을 대충 다듬어 놓은 화강석 불대좌다. 높이 약 2m정도 되는 것으로 그리 큰 편은 아니나 삼층석탑과 함께 조화를 이루워 거둔사터 특유의 애잔한 모습을 연출한다.

거둔사터 탐방에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은 사지 앞을 흐르는 개울을 건너 1년 봄 폐교된 정선초등학교 교정에서 심드렁하게 누워있는 홀로 된 당간 지주 한쪽을 만나보는 일이다. 옛날 현재산의 남매장사가 당간지주를 옮기다가 남동생이 죽어 한 짝은 옮기지 못해 하나뿐이라는 설화를 직접 이 당간지주는 9.6m나 되는 길이로 폐교 이전에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 추억조차 꿈속의 일인듯 모로 누워 오수를 즐기고 있다.

이번 탐방 길에 새롭게 발견한 보물은 다름 아닌 사지 왼쪽 편에 모아놓은 석조물들이다. 옛돌, 장대석, 주춧돌이 즐지어 누워있는 것이, 원공국사승요탑이 있던 지점 석 자리에서 내려다 보니 마치 관곽을 정돈해 놓은 것처럼 숙연해 보이기도 한다. 저 석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자작고개를 넘나들던 현재산 산승들의 불국정도 언덕일까. 마음을 향해 지를 대며 흘러가는 바들치 튀는는 사냥물 소리일까. 그 석물들이 한같이 고개를 향한 서쪽 1만여평의 농경지에서는 지금도 석축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거둔사터가 일어버린 사역을 모두 되찾을 때 중원불교의 제2 중흥시대는 열릴 것이다.

〈시인·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다음은 원주 지정면 흥법사터

현대불교신문사

스님·불자님

부다피아 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부다피아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시금이 적립됩니다.
스님, 종무원, 불자 누구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외환카드 회원도 추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부다피아카드만의 특전

- 동국대의료원 산하 5개 양·한방 병원 진료비 5-20%감면
-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 할인
- 불교전문쇼핑몰 "마하물" 할인
- 전국 유명호텔, 콘도 최고 88%할인
- 유명백화점 및 할인점 무이자 할부 2-3개월
- 외식업체할인서비스(까르네스테이션 등)
- 국내외 항공권 3% 할인
- 현대정유 오일뱅크 리터당 30원 적립
- 물품구매 누적금액에 따라 1,000원당 3원에서 10원 적립

가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불교 카드 사업단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직통) 02-725-1132
대표) 02-737-8881

